

슬로 패션의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분석 -John Alexander Skelton과 Geoffrey B. Small을 중심으로-

홍준영 · 전재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nalysis of Designer Brands Aiming for the Value of Slow Fashion -Focused on John Alexander Skelton and Geoffrey B. Small-

Junyoung Hong · Jaehoon Chun*[†]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15, 2020; Revised October 24, 2020; Accepted November 9, 2020

Abstract

'Slow fashion' has become a hot issue in the fashion world as fast fashion has caused environmental and ethical problems. This study synthesized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from preceding studies and organized them into four characteristics (craftsmanship, nature-friendly attitude, localism, and pursuit of exclusive value). This study compared designers, John Alexander Skelton and Geoffrey B. Small with four characteristics. First, both designers sought craftsmanship based on tailoring, but Skelton focused on the eco-friendliness of materials, and Small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fabrics. Second, we found a nature-friendly attitude in both designers, but unlike Skelton, which maintains nature-friendliness in the process of clothing production, Small showed this characteristic through presentations. Third, both designers revealed localism through their affection for the fabrics and culture of each country. Moreover, Small extended its meaning to respect minority tastes. Finally, both designers pursued exclusive values through collections under the themes of class problem, and gender conflicts. However, Skelton melted these topics into British culture and revealed them indirectly versus Small who showed sensitive topics directly in the collection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nalyzing designer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and suggests directions that slow fashion designers should move towards.

Key words: Slow fashion, John Alexander Skelton, Geoffrey B. Small, Craftsmanship, Sustainability; 슬로 패션, 존 알렉산더 스켈톤, 제프리 비 스몰, 장인 정신, 지속가능성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ngkem2@snu.ac.kr

This work research was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19S1A5A2A03054508).

I. 서 론

패스트 패션에 의한 환경, 윤리적 문제는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빠름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근원을 두고 있다. 급성장, 빠른 속도, 최첨단 등의 단

어가 성공의 조건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으로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슬로 무브먼트(slow movement) 운동이 제기되었다(Jang, 2007). 슬로 무브먼트는 슬로 푸드(slow food), 슬로 시티(slow city), 슬로 디자인(slow design)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Shin & Seo, 2007), 슬로 푸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패션 분야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Lee et al., 2014).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Fletcher(2010)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이며, 속도의 문제만을 다룬다기보다는 생산, 소비, 유통, 착용에 이르기까지 패션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운동이다. 이러한 슬로 패션은 에이치앤엠(H&M), 자라(ZARA) 등의 SPA 브랜드에 의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항하는 개념으로(Pookulangara & Shephard, 2013),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느림’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시도로 에코(eco) 패션, 업사이클링(upcycling) 패션, 윤리적 패션, 슬로 패션 등의 개념들은 최근 학계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는 상태이다(Lee & Ahn, 2015). 하지만 주목받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슬로 패션은 현재 가장 보기 힘든 스타일 중 하나이다(Lee & Kim, 2018). 이는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슬로 패션 의류의 특성상 제한된 유통 경로와 높은 가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패션계의 상황 즉, 과거처럼 하나의 특정 유행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미적 취향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이 소비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슬로 패션은 ‘복식 행위’를 통해 그들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을 지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슬로 패션과 관련한 상당수의 국내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마케팅의 관점에서 슬로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느린 속도의 맥락에서 슬로 패션의 수공예적 특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기계적 생산에 의존하는 패스트 패션에 반하는 주제인 만큼 ‘손에 의한 제작’은 슬로 패션의 근본적인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도 하나의 특성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수공예의 특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슬로 패션의 적극적인 사회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슬로 패션을 하나의 디자인 경향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슬로 패션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인에 의한 느린 생산을 핵심 특성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더 넓게는 윤리적 측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슬로 패션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가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토대로 슬로 패션의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해당 특성에 부합하는 디자이너의 사례를 열거하는 식의 연구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슬로 패션을 지향하는 두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슬로 패션의 특성들이 각 디자이너에게서 구현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슬로 패션의 특성 네 가지를 도출한 후, John Alexander Skelton과 Geoffrey B. Small의 패션 활동에서 슬로 패션의 특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슬로 패션 특성을 통해 디자이너를 분석하는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슬로 패션을 추구하는 신생 브랜드 혹은 기존의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이 지배적인 현 패션업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가 시행되었다. 슬로 패션 관련 서적 및 논문들을 통하여 슬로 무브먼트의 전개 과정과 슬로 패션의 정의를 알아보고, 슬로 패션의 특성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로써 사용된 네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이디(i-d)』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매거진의 Skelton, Small과 관련된 기사, 오픈너(opener), 다크랜드 베를린(darkland Berlin) 등의 국내외 셀렉샵의 소개글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두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과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Skelton과 Small 모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작품과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두 디자이너의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나 Small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브랜드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로는 Skelton의 경우 2016년도 졸업 패션쇼에서부터 20 F/W까지 57점의 작품과 함께 8개의 컬렉션을 연구하였고, 그중 영국적 색채가 뚜렷하고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한 17 S/S의 ‘Collection I’, 17 F/W의 ‘Collection II’, 19 F/W의 ‘Collection VI’, 20 F/W의 ‘Collection VIII’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매거진에 게재된 자료 또한 연구의 사례로 활용하였다. 한편, Small의 경우 1996년 최초의 파리 리사이클링(recycling) 컬렉션에서부터 20 S/S까지 73점의 작품과 20회의 컬렉션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고, 슬로 패션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반영하는 5회의 컬렉션인 ‘Logomania Revisited(10 S/S)’, ‘Forests and Trees(15/16 F/W)’, ‘The Onion(19 F/W)’, ‘I’m Not Sustainable(19 F/W)’, ‘L’Alcibiade(20 S/S)’를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Skelt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 또한 연구 사례로 활용하였다.

Skelton은 2016년도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에서 남성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2020년에 8번째 컬렉션을 선보인 영국의 신진 디자이너이다(“John Alexander Skelton”, n.d.-a). 그는 영국 전통유산과 민속 문화에 관심이 많은 수공예 장인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옷을 제작한다(“John Alexander Skelton”, n.d.-b). 이에 반해 Small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디자이너로, 최근 18 S/S 시즌에 파리에서 100번째 컬렉션을 진행함과 동시에 본인의 컬렉션 연대기를 담은 책을 발간하여 팬들과 소통하기도 하였다(Siwak, 2018). 그는 높은 수준의 테일러 기술과 최고 품질의 소재를 사용하여 옷을 만들 뿐만 아니라, 컬렉션 혹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kelton과 Small을 연구사례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디자이너 모두 수공예 장인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슬로 패션의 네 가지 특성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인다. 또한, 영국 문화유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신진 디자이너인 Skelton과,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런웨이를 진행한 Small은 슬로

패션의 여러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 디자이너는 환경적 이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수공예적 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슬로 패션의 실천적 행위를 중시한 Fletcher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 디자이너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슬로 패션의 네 가지 특성이 각 디자이너에게서 실현되는 방식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슬로 패션의 개념 및 특성

1. 슬로 무브먼트

슬로 무브먼트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활의 속도를 줄이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여 행복을 찾자는 모토의 운동이다(Kang, 2017). 즉, 패스트 문화에서 기인한 강박관념, 소외감, 무한경쟁, 공해 등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Lee & Yhang, 2009). 이러한 느림의 철학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1986년 슬로 푸드 운동을 기점으로 가속화되었으며 슬로 시티, 슬로 디자인, 슬로 패션 등으로 확대되어왔다.

슬로 푸드 운동은 1986년, 대표적인 패스트 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개장하면서 일어난 운동으로,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를 추방하고 자국의 전통 식단 수호 및 인간성 회복을 명분으로 시작되었다(Jang, 2007). 이후 1989년 Carlo Petrini의 주도로 파리에서 슬로 푸드 선언문이 공표되면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Kim, 2015). 슬로 푸드 운동은 단지 음식에만 국한된 운동이라기보다는, 효율성 향상과 합리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속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인간의 존재 방식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안을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Lee, 2002).

한편, 슬로 시티는 자연환경과 고유음식, 전통문화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뜻한다(Choi, 2017). 슬로 시티는 1999년 ‘인간답게 사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으며, 2002년 그레베(Greve)를 공식적으로 슬로 시티로 지정하면

서 본격화되었다(Oh & Hong, 2009). 이러한 슬로 시티 운동은 속도 지향의 사회가 아닌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생산성 지상주의의 탈피, 환경을 위협하는 바쁜 생활 태도의 배격 등을 목표로 한다(Park et al., 2008).

또한, Alastair Fuad-Luke은 2002년 ‘디자인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슬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슬로 디자인은 인도적 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며(Chae, 2009), 영원한 스타일(timeless style), 재생 가능한 디자인(renewable design), 다기능적 디자인(multi-functional design)을 특징으로 한다(Lee et al., 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낌을 기본 가치로 삼는 슬로 무브먼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운동 혹은 라이프 스타일로서 나타나고 있다. 느낌의 물결은 Alastair Fuad-Luke에 의해 디자인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하였으며, 패스트 패션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시점에서 패션 분야에서도 주요 흐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슬로 패션의 개념

지속가능성은 2020년 현재 패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매킨지(Mckinsey & Company)는 2020년 패션 산업 전망 보고서(The State of Fashion 2020)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밝힘과 동시에 패션 기업들이 이를 단순히 마케팅의 용도가 아닌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과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Lee, 2020). 여기서, 지속 가능한 패션은 소재와 생산방법, 유통, 소비, 폐기 등 패션 상품의 전 과정에 있어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노동윤리를 확보하고 공정 거래를 추구하는 패션으로 정의된다(Kang, 2020).

지속 가능한 발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산업인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Oh, 2020). 이는 패스트 패션이 유발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때문에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 패션이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

반응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트렌드로 에이치엔엔, 자라 등이 대표적 브랜드이다(Hall, 2018). 패스트 패션에 의해 정규 시즌은 의미가 없어지고, 생산 리드 타임은 줄어들어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채 한 달도 소요되지 않는다(Sull & Turconi, 2008). 이러한 특징은 패션 제품의 수명주기를 단축할뿐더러 패스트 패션의 저가격, 저품질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으로 옷을 구매하고 얼마 가지 않아 많은 수의 의류들을 폐기하기에 이른다(Jung & Jin, 2016). 이처럼 폐기 의류의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초과 노동과 저임금 문제, 의류 공장의 열악한 환경 등은 패스트 패션의 화려한 측면과 대조를 이루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Štefko & Steffek, 2018). 따라서, 빠름을 핵심 요소로 하는 패션의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패션계에서 주요 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달성하려는 한 흐름으로, 슬로 패션은 영국의 지속 가능 패션 센터(Center for Sustainable Fashion, UK)의 Fletcher에 의해 2007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의류 생산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Watson & Yan, 2013). 즉, 슬로 패션은 패션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속도를 늦추고, 제품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 옷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빠른 생산, 낮은 가격, 짧은 리드 타임을 핵심으로 하는 패스트 패션에 반하여 떠오른 운동인 만큼 슬로 패션은 전통 수공예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Jung & Jin, 2014). 이러한 슬로 패션에서 소비자들은 장인들의 아티저널(artisanal)한 제작 방식을 통해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동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며(Kim, 2002), 소비자들은 해당 옷에 큰 의미를 두게 되고, 옷에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Johansson, 2010). 슬로 푸드 운동이 단순히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 식생활 전체 과정에 있어 인간관계의 회복에 집중하였듯이, 슬로 패션은 단순히 옷의 생산과 소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넘어, 의생활 전반에 있어서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Fletcher, 2010). 또한, 슬로 패션은 친환경적인 소재와 재활용된 소재의 사용을 추구하고 유행을 초월한 디자

인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상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공정 무역을 추구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Lee & Ahn, 2015).

3. 슬로 패션의 특성

많은 선행연구에서 슬로 패션과 슬로 디자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 에코 패션, 친환경적 패션, 슬로 패션 등의 유사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연유로 체계적인 특성도 도출되지 못했다. Lee et al.(2007)은 앞서 언급한 Alastair Fuad-Luke의 슬로 디자인 특성을 일부 변경하고 수공예적 스타일(hand-touch style)을 추가하여 영원한 스타일(timeless style), 수공예적 스타일(hand touch style), 재생 가능한 디자인(renewable design), 변형 가능한 디자인(transformable design)으로 슬로 패션의 스타일을 정의하였다. 영원한 스타일은 시대적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타일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스타일이나 단순한 실루엣을 의미한다. 또한, 수공예적 스타일은 수제작으로 인한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인을 의미하며, 재생 가능한 디자인은 소재의 재사용을 통한 디자인 창조로, 리사이클링 패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형 가능한 디자인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고, 복합적인 기능성을 의미하는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Alastair Fuad-Luke의 다기능적 디자인과 유사한 특성이다. 또한, Chae(2009)는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영원성(timeless), 재생 가능성(renewable), 수공예성(hand-touch), 자연 친화성(natural), 그리고 단순성(simple)을 들었다. 여기서 단순성은 미적인 효과에 더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약까지도 의미하는 특성이다. Ro and Kim(2011)은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의 특징으로 절제의 미덕(moderation), 인간윤리 회복(recovery of humanity),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pluralism & local indigeneity)을 제안하였다. 한편, Cataldi et al.(2013)은 『Slow fashion: Tailoring a strategic approach for sustainability』에서 슬로 패션이 지향하는 바로 스타일, 소재, 기술에서의 지속 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s), 다기능적이고 영원한 의류 디자인(multifunctional & timeless design), 업사이클링과 기존 소재의 재활용(upcycling & reusing existing textiles), 의류 제품 리스와 같은 전략적이고 서비스에 기반한

대안(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의 제시를 언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Lee et al.(2014)은 슬로 패션의 소비 욕망을 고찰한 연구에서 동물 권리 보호(animal rights protection), 친환경 소재 사용(eco-friendly materials), 천연 염색(natural dyeing), 정당한 노동 환경 및 공정 거래(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를 슬로 패션의 주요 특성으로 논한다. 또한, Jung and Jin(2014)은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공정성(equity), 진정성(authenticity), 기능성(functionality), 지역성(localism), 배타성(exclusivity)을 제시하였다. 공정성은 공정 무역을 통해 슬로 패션 제품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며, 생산자는 그에 맞는 존중과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성은 장인 정신에 근거한 제작 방식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성은 제품의 기능적 측면으로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역성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 사업을 지지하는 특성이며, 배타성은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Lee and Ahn(2015)은 다기능적 디자인(multi-functional design), 토속성(tradition), 다양성(diversity), 윤리성(ethics), 친환경성(eco-friendly),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슬로 패션의 특징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슬로 패션의 특성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인 정신(craftsmanship)’, ‘자연 친화적 태도(nature-friendly attitude)’, ‘지역성(localism)’, 그리고 ‘배타적 가치 추구(pursuit of exclusive value)’의 네 가지 맥락으로 정리되었다.

장인 정신은 전통에 기반한 정교하고 고도로 기술적인 테일러링을 기본으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오로지 손으로만 제작하는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특성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의류 생산과 염색 방식 그리고, 친환경적 주제로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성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 세계적인 트렌드에 반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디자인과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의 차원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의 취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특성인 배타적 가치 추구는 패션에서의 윤리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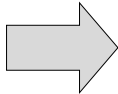
Researcher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in previous studies	Reunion of characteristics of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in this study
Lee et a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meless style - Hand-touch style - Renewable design - Transformable design 		Craftsmanship
Chae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meless - Renewable - Hand-touch - Natural - Simple 		
Ro and Kim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ion - Recovery of humanity - Pluralism & local indigenuity 		Nature-friendly attitude
Cataldi et a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ble innovations - Multifunctional & timeless design - Upcycling & reusing existing textiles - 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 		
Lee et a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l rights protection - Eco-friendly materials - Natural dyeing - 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 		
Jung and Jin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ty - Authenticity - Functionality - Localism - Exclusivity 		Localism
Lee and Ahn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functional design - Tradition - Diversity - Ethics - Eco-friendly - Sustainability 		Pursuit of exclusive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uralism & local indigenuity - Localism - Tradition - D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very of humanity - 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 - Animal rights protection - 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 - Equity - Ethics - Exclusivity 		

Fig. 1.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디자이너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특성이다.

IV. Skelton과 Small의 작품 분석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출한 슬로 패션의 네 가지 특성인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

역성, 배타적 가치 추구를 통해 디자이너 Skelton과 Small에서 슬로 패션의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장인 정신

Skelton은 영국 전역의 직공과 면화, 양모 공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7~19세기의 복식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록(frok), 푸르푸앵(pourpoint) 등과 같

이 테일러링에 기반한 의류를 제작한다(“John Alexander Skelton”, n.d.-a)(Fig. 2). 또한, 모든 옷은 Skelton의 손을 직접 거치며 전량 그의 스튜디오에서 완성된다(“John Alexander Skelton”, n.d.-c). 한 인터뷰에서 그는 본인만의 베틀을 통해 직물까지 직접 생산한다고 밝혔고, 그의 작업을 쿠티르(couture)에 비유하여 주류 명품 패션계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Poh, 2020). Skelton은 봉제뿐만 아니라 염색과 같은 가공에 있어서도 핸드 다잉(hand-dyeing)<Fig. 3>, 핸드 워싱(hand-washing) 기법을 통해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 특히나, Skelton은 광범위한 법의학적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한 방식으로 염료를 생산한다(Kendall, 2018). 예를 들어 그는 석탄을 끓여서 흑색을 얻고, 런던의 공원에서 그가 관리하는 녹과 잎을 포함하여 영국 고유의 유기 자원으로부터 자연의 색을 얻는다. 심지어 본인의 소변을 염색의 고착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Skelton의 아티저널한 제작 방식은 패스트 패션에 대항하는 안티테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Sanchez, 2019).

특히나 Skelton의 디자인에 있어서 장인 정신은 소재의 선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Skelton이 컬렉션을 구상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소재이다. 19 F/W 컬렉션은 노동자, 농민, 빈곤한 마을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하기에 부드럽고 매끈한 소재가 아닌 거칠고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여 컬렉션을 구성하였고(Blythe, 2020), 20 F/W 컬렉션에서는 한 벌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무려 11가지 종류의 울을 사용하였다(Toner, 2020)(Fig. 4). 또한, Skelton은 영국의 양 품종들이 그들이 사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자연적으로 세련된 회색조를 띠게 됨을 알고, 20 F/W 컬렉션에서 해당 색을 기존의 인위적인 회색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A first look”, 2018).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에서 NGO 등의 조합들과 함께 섬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며, 양질의 양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10×10 John Alexander Skelton”, 2019). 영국 양털로 만든 위빙 울, 희귀 품종의 양모로 만든 뜨개실을 주로 사용하고, 심지어 그는 좋은 양모를 얻기 위해 양의 식단까지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s, 2018).






Small은 이탈리아 카바제레(Cavarzere)에 있는 작업실에서 손으로 직접 의류를 제작하며 전 세계의 선도적인 소수의 셀렉샵에만 그의 레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한 시즌당 최대 생산량을 400벌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옷 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Ahmed, 2016). Small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패턴 메이커이자 테일러이다. 따라서, 그의 컬렉션의 모든 옷은 재킷, 셔츠, 트라우저 등의 테일러 의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와 재단 기술이 그의 장인 정신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Small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탈리아라고 언급하며(“Geoffrey B. Small”, n.d.), 그와 긴밀한 작업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의 수공예 장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mall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최고의 내구성과 품질을 지닌, 평생 입을 수 있는 의류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최고급 소재에 대한 연구이다. Small의 한정 수량 제품을 위한 양질의 울을 제공해주는 프라텔리 피아첸자(Frattelli Piacenza)와 그의 컬렉션을 위한 극상의 면과 린넨을 제공해주는 파리소토(Parisotto)가(家)는 소재의 측면에서 그의 장인 정신을 구현해주는 주요 공급 업체이다(Musmeci, 2015a)(Fig. 5). 이러한 퀄리티에 대한 그의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Small은 그의 2020년 컬렉션에서 수트를 위한 극세 양모 소재로 이탈리아 피아첸자의 가장 오래된 모직 공장에서 생산되는 ‘슈퍼 210 아르카디아(Super 210 Arcadia)’를 소개하기도 하였다(Siwak, 2019)(Fig. 6).

Small은 진정한 의류 디자이너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가방과 액세서리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로고 마케팅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패션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양적 성장을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슬로 패션을 지향하는 Small과 정반대에 있다. 그뿐 아니라 Small은 브랜드 고유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많은 수량 제작하지 않으며(Labercane, 2019), 대부분 한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20벌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류의 품질에 대한 열정 때문에 Small은 공급 대비 소비자의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최고의 브랜드로 남기를 원하며, 기성복의 생산이 아닌 한정 수량의 의류 생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인 정신과 관련한 두 디자이너의 사례는 <Table 1>로 정리하였다.

Table 1. Craftsmanship

Designer	Cases of craftsmanship		
<p>John Alexander Skelton</p>	 <p>Fig. 2. Style of British costume history.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b). https://www.instagram.com</p>	 <p>Fig. 3. Hand dyeing.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c). https://www.instagram.com</p>	 <p>Fig. 4. Patchwork of 11 varieties of wool.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b). https://www.instagram.com</p>
<p>Geoffrey B. Small</p>	 <p>Fig. 5. Fratelli Piacenza for Geoffrey B. Small. Adapted from Fratelli piacenza1733 for Geoffrey B. Small (2019). https://hues.co.jp</p>		 <p>Fig. 6. GBS suits by Super 210 Arcadia. Adapted from Geoffreybsmall (2020). https://www.instagram.com</p>

2. 자연 친화적 태도

장인 정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kelton이 염료 선택에 있어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직접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침대 시트, 곡물 자루와 같은 재료들을 업사이클링하여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Fig. 7). 이러한 낡은 재료들은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골동품 거래상들로부터 얻어지며, 그들은 컬렉션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Skelton에게 있어서 업사이클링은 여름 시즌의 컬렉션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겨울에는 쇼를 하고 여름에는 룩북(look-book)만을 구성하는 Skelton의 컬렉션 구성 방식과 관련이 있다. 겨울 시즌의 쇼를 위한 거의 모든 직물을 Skelton이 개발한다면, 여름 시즌의 룩북은 직전

겨울 컬렉션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구성된다. 즉, Skelton은 겨울 컬렉션에 맞춰 개발한 옷들을 모두 해체한 후 옷의 안감을 다시 여름에 맞는 소재로 재개발하여 여름 컬렉션을 전개한다(Poh, 2020).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지속가능성은 패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주장하며 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원, 친환경적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패션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영국에서 제작되는 양모의 약 3%만이 영국의 양에서 나온다는 통계를 보고,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양모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그는 영국의 양털만으로 양모를 제작하는 유일한 방적사를 통해 의류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그가 영국 자국의 양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과는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

하다(Shahnavaz, 2016).

한 인터뷰에서 Skelton은 패션업체가 석유 산업 다음으로 큰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업종임을 상기시키며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단지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Fig. 8). 또한, 브랜드의 성장과 관련하여 그는 막무가내식 성장보다는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업화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브랜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독립 레이블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Poh, 2020).

Small이 이탈리아 아티잔(artisan)들에 의한 생산을 중요시하고 전 세계의 유통망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슬로 패션의 첫 번째 특성인 장인 정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원단 소싱과 제품 수출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효과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수공예의 과정을 아티저널한 관점에서만 다루었지만, 핸드크래프트 제작 방식은 전기와 석유, 그리고 기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와 메탄을 대기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친환경적인 방법이다(Ahmed, 2016). 장인 정신에서 파생된 친환경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Small의 컬렉션 주제를 통해서도 그의 환경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Small은 1996년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남성 리사이클링 컬렉션을 개최하였다(Fig. 9). 이는 후에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헬 무트랭(Helmut Lang) 등에 의해 계승되어 30개 이상의 리사이클링 기술 혁신을 일으키게 된다(Fig. 10). 또한, 17년 이상 전 세계에서 리사이클링 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2007년 그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최초로 도입하였다(“The amazing”, n.d.). 15/16 F/W 시즌에는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캣워크에 도입하면서 도구적 이성을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산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였다. 톱에 의해 베인 나무와 같이 모델들은 위킹을 하면서 쓰러졌으며 컬렉션 전반의 검정 베이스의 색채 팔레트는 죽은 나무를

애도하는 듯했다(Fig. 11). Small은 해당 컬렉션을 본인의 작업장이 있는 카바제레에서 베어질 위기에 처한 25개의 고목에 헌정한다. 또한, 전 세계의 나무들을 베지 않고 잘 보존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산림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Musmeci, 2015b).

두 디자이너의 자연 친화적 태도와 관련한 사례는 <Table 2>와 같다.





3. 지역성

Skelton은 영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소재를 소싱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도에서 직접 손으로 짠 직물을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한다. Skelton에게서 지역(자국)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목적 외에 지역성은 컬렉션의 주제에서 진하게 나타난다. 그의 컬렉션은 영국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John Alexander Skelton”, n.d.-a), 세인트 마틴스의 졸업 컬렉션에서부터 20 F/W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1930년대 인도와 영국의 면화 교역, 전통 영국의 19세기 민속 극장 문화, 중세 영국의 이교도 의식, 웨일즈(Wales)의 시인 Dylan Thomas의 희곡 등과 같이 영국과 관련된 주제로 컬렉션을 전개해왔다.

그의 졸업 컬렉션은 1936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일상 기록화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잉글랜드 북부의 산업 도시인 볼튼(Bolton)에 거주하는 노동자 계급의 생각과 감정 상태를 알아내고자 진행되었다. Skelton은 관찰자와 관찰을 당하는 노동 계급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색적인 실루엣과 가공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컬렉션을 풀어냈다. 졸업 컬렉션의 주제와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그는 특정 맥락에서 사회, 정치가 문화와 패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계급에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의류가 어떻게 한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해당 컬렉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Shahnavaz, 2016).

이후 전개된 그의 두 번째 컬렉션의 주제는 20세기 초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 주목한다. Skelton은 반제국주의 시위행위의 일환인 카디(Khadi) 운동을 주창했던 Gandhi로 인해 절정에 이른, 인도와 영국의 분열적인 면화 무역의 역사에 영감을 받아 해당 컬렉션을

Table 2. Nature-friendly attitude

Designer	Cases of nature-friendly attitude		
<p>John Alexander Skelton</p>	 <p data-bbox="337 598 719 677">Fig. 7. Upcycled 19C grain sack jacket. Adapted from Baker (2018). https://www.bbc.com</p>	 <p data-bbox="838 598 1234 677">Fig. 8. Faux sustainability, Collection VII.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a). https://www.instagram.com</p>	
<p>Geoffrey B. Small</p>	 <p data-bbox="323 976 604 1103">Fig. 9. Geoffrey B. Small recycling fashion show. Adapted from The amazing Geoffrey B. Small story: 1976-2011 (n.d.). http://www.geoffreybsmall.net</p>	 <p data-bbox="637 976 943 1103">Fig. 10. Recycling technology innovations. Adapted from The amazing Geoffrey B. Small story: 1976-2011 (n.d.). http://www.geoffreybsmall.net</p>	 <p data-bbox="991 976 1249 1079">Fig. 11. Forests and trees. Adapted from Musmeci (2015b). http://www.leparadox.com</p>

완성했다(“John Alexander Skelton”, 2016). Gandhi의 카디 운동은 Skelton이 주장하는 지속가능성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대량생산에 반대하며 손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수공예 방식은 물론, 자급자족의 산업을 위해 영국 면화의 수입을 금하고 인도 자국의 면화 생산을 장려하는 Gandhi의 모습은 환경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원단 수입을 하지 않고 영국의 직물로만 의류를 제작하는 Skelton을 닮아있다. 해당 컬렉션의 모든 제품은 면으로 제작되었으며, Stephen Jones과 협업을 통해 모자를 제작하였는데, 인도의 신문으로 제작된 Gandhi 모자가 해당 컬렉션의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Fig. 12).

Skelton의 지역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컬렉션으로 6번째 컬렉션을 들 수 있다. 해당 컬렉션은 16세기 범죄자, 채무자, 재단사 등의 계급들이 살고 있었던 템즈강(Thames) 주변의 무법천지 지역이었던 알세이셔(Alsatia)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당시 영국

에는 노동자들이 좋은 옷을 착용하고 거짓된 사회 계급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인 ‘사치 금지법’이 존재하였고, Skelton은 해당 컬렉션에서 하인들이 주인의 옷을 모방하는 모습을 모델들의 독특한 퍼포먼스를 통해 풀어냈다. 플릿(Fleet)가의 술집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나이 든 남자 모델들이 공연장의 방 사이를 흥겹게 오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그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발을 구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가구들을 치기도 하였으며, 소리를 질러 관객들의 당혹감을 자아냈다. 모델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위는 어두운 조명의 공연장과 함께 관객들이 옷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런던의 무질서한 시기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A sense”, 2019).

Skelton의 최근 컬렉션이자 쇼 스튜디오(show studio)의 생중계로 진행된 20 F/W 컬렉션은 웨일즈의 시인 Dylan Thomas의 미완성 희곡인 언더 밀크우드(Under Milk Wood)를 주제로 하며, 자블루도비츠 콜

렉션(Zabludowicz collection) 미술관에서 그의 동생 Ryan Skelton에 의해 진행되었다(Toner, 2020). 그는 얼굴에 밀크 우드의 수액이 묻은 듯한 메이크업을 하고 언더 밀크 우드의 대사를 단호한 어조로 낭독하는 동시에, 흰색 천에 덮여 무대 위에 눕혀져 있던 마네킹들을 차례로 들어 올려세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Fig. 13). 해당 컬렉션의 옷들은 전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거칠지만 위엄 있는 보헤미안적 무드가 강하게 드러났으며(Zhang, 2020), Skelton 본인이 직접 희곡의 대사를 적어 디자인한 셔츠에서 영국의 문학에 대한 그의 애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Small의 경우 ‘메이드 인 이태리’의 로컬 소싱과 프로덕션이 지역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특히나, 작업장 250 km 근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생산의 측면에서 지역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The amazing”, n.d.).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성은 소수에 대한 취향, 비주류에 대한 존중 등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거대담론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Small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신진 디자이너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AICI(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Créateurs Independants)를 설립하였고, 2005년 그들을 위한 최초의 AREA쇼를 파리에서 개최하였다(Fig. 15). 해당 쇼는 170개 이상의 개별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에 57명 이상의 개성 넘치는 독립 디자이너들을 소개하였다(“The amazing”, n.d.).

그뿐 아니라, Small은 2009년부터 반핵 주제를 그의 컬렉션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의 제2의 조국인 이탈리아를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뒤이어 파리에서 열린 2010년 6월의 ‘Logomania Revisited’라는 주제의 컬렉션은 반핵 주제를 공론화한 최초의 컬렉션으로, 새로운 핵 르네상스 시대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 특히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염려가 담겨있었다(Fig. 16). Small의 지속적인 이탈리아의 반핵 운동에 대한 지원과 베네치아(Venezia)에서 열린 54회 비엔날레(biennale)에서의 그의 특별한 설치 예술은 2011년 6월 이탈리아에서 핵 발전을 중단하게 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방사선 심볼의 브로치 판매를 통해 세계 최대

의 반핵 연맹이자 프랑스의 비영리 환경 단체인 ‘Re-seau de Sortire du Nucleaire’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Wholesales agent contract”, n.d.)(Fig. 17).

<Table 3>에서는 지역성과 관련된 두 디자이너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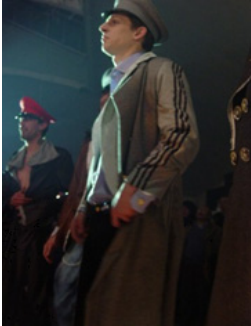


4. 배타적 가치 추구

Skelton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에서 배타적인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매거진들과의 인터뷰 내용 혹은 프레젠테이션에 내재한 의미 속에서 그가 패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히 전달되어왔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Skelton은 컬렉션을 구성함에 있어 모든 소재를 직접 개발한다. 그 때문에 그는 소재나 부자재 등 그의 옷의 디자인 요소가 공급된 출처와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 즉, Skelton은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을 자부한다(Kendall, 2018). 또한, 소비자가 직접 그의 옷을 만져보고 경험한 후에 구매하기를 원하기에 유통망 설정에 있어서 일체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Skelton은 그의 옷을 구매하는 사람이 타인의 잣대에 의해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옷속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소비자이기를 원하며, Skelton 본인이 추구하는 신념을 복식 행위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고자 한다. 물론 그도 한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양질의 의복을 오랜 시간에 걸쳐 소량 생산하는 슬로 패션의 특성상 가격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가 의도했던 패션의 대중화가 좌절되고, 결국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자가 슬로 패션을 진정으로 즐기는 향유자가 되는, 슬로 패션 시스템의 역설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Poh, 202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의 적은 수의 옷을 소비하는 것이 모든 소비의 형태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슬로 패션의 소비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10×10 John Alexander Skelton”, 2019).

Skelton은 패션업계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디자이너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디자인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며

Table 3. Localism

Designer	Cases of localism		
<p>John Alexander Skelton</p>	 <p>Fig. 12. Indian newspaper hat. Adapted from John Alexander Skelton (2016). https://www.whiteliesmagazine.com</p>	 <p>Fig. 13. Performance of Collection VIII.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a). https://www.instagram.com</p>	 <p>Fig. 14. Hand-written shirts.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c). https://www.instagram.com</p>
<p>Geoffrey B. Small</p>	 <p>Fig. 15. AREA Defiles edition 1. Adapted from AREA DÉFILÉS: revolution in the Paris fashion show system (n.d.). http://www.geoffreybsmall.net</p>	 <p>Fig. 16. Logomania revisited. Adapted from GEOFFREY B. SMALL “LOGOMANIA revisited” (n.d.). http://www.geoffreybsmall.net</p>	 <p>Fig. 17. Radioactivity symbol brooch. Adapted from GEOFFREY B. SMALL “LOGOMANIA revisited” (n.d.). http://www.geoffreybsmall.net</p>

전개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며, 사회적 계급과 패션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Skelton은 여러 이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시화한다. 『대이즈(Daze)』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패션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패션의 가시적 특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Shahnavaz, 2016). 영국의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Gandhi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민족적 카디 운동, 영국의 전통극장 문화<Fig. 18>, 영국 고대의 이교도 의식<Fig. 19>, 피털루(Peterloo) 학살 등 그의 컬렉션의 주제는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그의 컬렉션 주제는 최근

영국의 정치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Skelton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태를 비판하며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사회에 대한 염려를 표한다. 영국은 수 세기 동안 단일민족이 아니었고, 수도인 런던조차도 다양한 인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브렉시트로 인한 외국인 혐오증과 분리주의적 태도로부터 기인한 혐오 범죄가 영국 내에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Moss, 2018).

한편, Small에게 있어 배타적 가치는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라는 호칭에 걸맞게 컬렉션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뉘앙스를 띤다. 전쟁과 새로운 시대의 봉건주의에 대한 비판, 여성의 힘과 권력에 관한 담론, 선

진국의 문맹률 등을 컬렉션의 주요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Do Something’이라는 쇼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The amazing”, n.d.). Small은 최근 시즌까지 계속해서 컬렉션을 통해 패션업계, 사회 구조적 문제, 더 넓게는 환경과 관련한 쟁점에까지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109번째 컬렉션인 ‘L’Alcibiade’는 20 S/S 시즌의 런웨이로 파리 패션쇼의 역사상 최초로 오페라 공연을 도입시켰다(Fig. 20). 해당 오페라는 베니스에서 Marc Antonio Ziani에 의해 쓰인 곡으로,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전쟁에 참여한 Socrates의 제자이자 아테네의 정치가인 Alkibiades의 시칠리아(Sicilia) 원정과 관련한 내용이다(FM24, 2019).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페라의 내용보다는 현재 패션계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화두로 등장한 페미니즘을 고전 오페라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근본적인 개념인 여성의 힘과 권력을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였다. 실제 Alkibiades의 성별과는 반대로 여성의 연기자가 배역을 맡았으며, 여성 모델들은 투피스 테일러드 수트와 함께 서구 남성의 권위의 상징인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Small은 해당 컬렉션을 통해서 과거 그리스의 민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며, 남성과 동등한 여성 혹은 현대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쩌면 남성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상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19 F/W 시즌의 ‘I am Not Sustainable’은 제목에서부터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 현 세태를 비판하는 컬렉션이다. 슬로 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한 Small에게 “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구호는 다분히 모순적이다. 모델들은 무대 위를 워킹하며 “I am not sustainable”이라는 문장을 단호한 어조로 내뱉는다(Fig. 21). 이는 27명의 모델이 줄지어 등장한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러서는 동시적이고 반복적인 외침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들렸다. 일체의 사운드 트랙 없이 메아리치는 모델들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해당 주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Small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Small은 그의 브랜드와 같이 오랜 기

간의 연구를 통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 슬로 패션 브랜드와 달리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Areaparis, 2019b). 즉, 그는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트렌드 분석가들에 의해 제시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하여 결국, 단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를 비판하는 것이다.






동일 시즌 남성 컬렉션의 주제는 ‘The Onion’으로, Small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양파(onion)는 Dostoevskii의 역작인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에서 등장하는 주요 제재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신의 은총을 상징한다(Sohn, 2018). 신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양파를 선사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다른 영혼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녀는 양파를 놓치고 다른 영혼들과 함께 지옥의 구덩이로 추락하고 만다. 해당 컬렉션 또한, 런웨이와 프레젠테이션이 합쳐진 형식으로 Small의 연극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 여인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허공의 양파를 잡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쇼는 시작되고, 모델들의 캣워크와 동시에 여인을 중심으로 세 명의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다(Fig. 22). 20 S/S 시즌의 ‘L’Alcibiade’와 마찬가지로 Small은 현 사회의 메타포로서 Dostoevskii의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을 소개한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개개인들은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Dostoevskii의 소설에서는 구성원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신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협업하여 진정한 공동체를 이룩한다면 혼란의 상황에서 벗어나 번영과 균형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즉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양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Small은 확신한다(Areaparis, 2019a).

배타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두 디자이너의 사례는 <Table 4>와 같다.

5. 종합적 논의

Skelton은 수작업으로 의류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Table 4. Pursuit of exclusive value

Designer	Cases of pursuit of exclusive value	
<p>John Alexander Skelton</p>	 <p>Fig. 18. Performance of Collection IV. Adapted from Thompson (2018). https://www.bluestudiotrading.com</p>	 <p>Fig. 19. Performance of Collection III. Adapted from Gonsalves (2017). https://www.wallpaper.com</p>
<p>Geoffrey B. Small</p>	 <p>Fig. 20. L'Alcibiade. Adapted from FM24 (2019). https://www.fashionmagazine24.com</p>	 <p>Fig. 21. I am Not Sustainable. Adapted from 2019AW women's collection "I am not sustainable" (n.d.). http://leberger.jp</p>  <p>Fig. 22. The Onion. Adapted from Geoffrey B.Small 2019-20autumn & winter "the onion" 11.23(Sat.) store release (2019). https://hues.co.jp</p>

원단, 염료까지 직접 개발하며, 특히나 소재를 통해 슬로 패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인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 한편 Small은 테일러링에 기반한 브랜드인 만큼 소재와 재단 기술을 통해 장인 정신이 드러났다. 최소한의 의류 생산을 원칙으로 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는 일본의 칸반(kanban) 시스템에 기초하여 옷 한 벌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The amazing", n.d.).

또한, Skelton은 의류의 소재와 염료의 선택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의 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재를 자국의 것으로 한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반면 Small은 의류 제작의 수공예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 친화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의 메시지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냈다.

Skelton에게 지역성은 영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지

역 생산을 중시하며, 영국 문화와 관련한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mall의 경우 지역성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본국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라는 국가적 지역성뿐만 아니라 온갖 럭셔리 브랜드가 활개치는 패션업계에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대한 그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kelton은 그 만의 특별한 철학을 옷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에 대한 연구 끝에 영국적 색채가 짙은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현재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유사하게 Small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 공동체 의식 등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주요 사안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디자이너가 여타 다른 슬로 패션 디자이너들에 비해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특성은 위의 네 가지 특성 중 ‘배타적 가치 추구’이다. 많은 슬로 패션 디자이너들이 저마다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Skelton은 영국의 헤리티지를 실험성이 강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브랜드에 내재한 느낌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Small은 환경적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컬렉션을 통해 풀어내고, 이탈리아의 반핵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즉, 두 디자이너는 슬로 패션을 속도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운동으로 보는, 슬로 패션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슬로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확인되었지만, 각각의 특성을 해석하거나 실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두 브랜드 모두 양질의 소재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전개하고 있지만, Skelton에게 있어서 소재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의미가 크다. Skelton은 영국 각지의 골동품 상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류 소재가 아닌 낡은 재료들을 재활용하여 옷을 만들기도 하며, 특히나 여름 시즌의 컬렉션은 직전 겨울 컬렉션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Small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견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mall 또한 합성 섬유가 아닌 천연 섬유를 위주로 옷을 제작하지만, ‘슈퍼 210 아르카디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의 친환경적 측면보다는 품질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성에 대한 두 디자이너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지역의 소재를 최선으로 활용하고 지역 생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Skelton에게 있어서 지역성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현재 영국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한편, Small은 지역성을 하나의 주된 흐름과는 다른 ‘주변성’으로도 인식한다. 물론 그도 카바제레 지역을 중심으로 옷을 만드는 지역의 수공예 장인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

역성은 실험적이고 독특한 미감을 지닌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Skelton의 지역성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Skelton의 컬렉션은 영국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이지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날 뿐이다. 하지만 Small의 경우 ‘Do Something’, ‘I am Not Sustainable’ 등과 같이 컬렉션의 제목에서부터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연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컬렉션의 내용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결론적으로, Skelton은 보다 자연적인 소재의 활용과 Small에 비해 실험적이고 극적인 퍼포먼스를 컬렉션에 도입하면서, 신진 디자이너의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Small은 계속해서 양질의 소재 개발에 힘쓰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런웨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등 100회 이상의 컬렉션을 전개한 노련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접할 수 있었으며, 하이 패션의 유행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낮은 가격의 단가를 맞추기 위한 생산국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양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슬로 패션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게 되었다. Skelton과 Small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각자의 스타일을 통해 이러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요구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슬로 패션의 특성을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역성, 배타적 가치 추구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두 디자이너에게서 구현되는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Skelton과 Small은 모두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의류 제작의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결한다. 재킷, 셔츠, 트라우저를 기본으로 하는 테일러링 의류의 특성상 많은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디자이너 모두 소재와 옷의 가공 방법에 있어서 다른 브랜

드와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또한, Skelton은 수공예의 특성에서 기인한 자연 친화적 태도를 재활용 소재,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염료의 개발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었으며, Small은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 삼림 훼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두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지역성은 지역의 소재 활용, 지역 생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컬렉션을 선보이거나, 비주류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Skelton과 Small은 여러 매거진들과의 인터뷰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혹은 컬렉션의 주제를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비타협적인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빠른 속도에 큰 가치를 둔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의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많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업사이클링 패션, 윤리적 패션, 슬로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이너들은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슬로 패션을 표방하는 브랜드들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써,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용어를 사용하며, 그조차도 수공예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태도와 지역 생산을 고수하는 수공예 방식을 기본으로 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슬로 패션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디자이너 또한 직면하고 있는, 고가격으로 인한 슬로 패션의 대중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은 세컨 라인의 출시, 다양한 서비스와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즉, 디자이너의 비판 의식과 의도를 소비자들이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시장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거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브랜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 패션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윤의 추구가 주된 목적인 패션 기업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종 환경-사회적 세미나나 포럼 등에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해 대중성

을 획득하는 방식은 슬로 패션 브랜드들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Skelton과 Small은 시즌 트렌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패션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이며, 심지어 Skelton의 경우 2016년에 그의 첫 컬렉션을 선보였기에 국내의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Small의 경우 테일러링에 기반하고 소재, 패턴에서 많은 실험을 전개하는 신진 아티저널 디자이너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Skelton의 경우도 작업의 정량은 부족하지만, 탁월한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슬로 패션이라는 개념이 학계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만큼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선행연구들에서도 출된 특성들이 다소 모호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본 연구 또한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제시한 네 가지 특성인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역성, 배타적 가치 추구가 확연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특성 간의 연결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슬로 패션의 특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두 디자이너를 분석한 연구로, 슬로 패션의 특성을 통한 디자이너의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의 혹은 앞으로의 슬로 패션 브랜드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통해 실무적인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 first look at John Alexander Skelton's collection V. (2018, July 3). *Something Curated*. Retrieved from <https://somethingcurated.com/2018/07/03/a-first-look-at-john-alexander-skeltons-collection-v/>
- Ahmed, O. (2016, May 27). The beauty of Geoffrey B. Small's handcrafted slowness. *AnOther*. Retrieved from <https://www.anothermag.com/fashion-beauty/8730/the-beauty-of-geoffrey-b-smalls-handcrafted-slowness>
- AREA DÉFILÉS: revolution in the Paris fashion show system. (n.d.). *Geoffrey B. Small*. Retrieved from <http://www.geoffreybsmall.net/areaparis8thseasonareadefiles.htm>
- Areaparis. (2019a, January 21). Geoffrey B. Small "The Onion" Paris men's autumn/winter 2019 collection presentation.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m>

- RwR8ESzSIM
- Areaparis. (2019b, March 4). Geoffrey B. Small “i am not sustainable” Paris women's a/w 2019 collection show.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tUiA4RapESQ>
- A sense of unease: John Alexander Skelton's collection VI. (2019, January 12). *Paul gorman*. Retrieved from <https://www.paulgormanis.com/?tag=john-alexander-skelton>
- Baker, L. (2018, April 20). How fashion can stop ruining the planet. *BBC*.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culture/article/20180419-how-fashion-can-stop-ruining-the-planet>
- Blythe, F. (2020, January 15). John Alexander Skelton on the iconic Dylan Thomas poem that inspired his FW20 collection. *HERO*. Retrieved from <http://hero-magazine.com/article/162006/john-alexander-skelton-dylan-thomas-poem-fw20/>
- Cataldi, C., Dickson, M., & Grover, C. (2013). Slow fashion: Tailoring a strategic approach for sustainability. In M. A. Gardetti & A. L. Torres (Eds.), *Sustainability in fashion and textiles: Values, design, production and consumption* (pp. 22–46). Sheffield: Greenleaf Publishing.
- Chae, H.-S. (2009).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ustainable slow design and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4), 531–542. doi: 10.5850/JKSC.2009.33.4.543
- Choi, J. G. (2017). Is the slow city movement alternative? - From the standpoint of ‘Politics of Economic Possibility’-.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21, 123–136.
- Fletcher, K. (2010). Slow fashion: An invitation for systems change. *Fashion Practice*, 2(2), 259–265. doi:10.2752/175693810X12774625387594
- FM24. (2019, November 26.) Behind the brand – Geoffrey B Small. *Fashion Magazine 24*. Retrieved from <https://fashionmagazine24.com/interviews/the-vision-behind-the-brand-geoffrey-b-small/>
- Fratelli piacenza1733 for Geoffrey B.Small. (2019, May 10). *HU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hues.co.jp/fratelli-piacenza1733-for-geoffrey-b-small/>
- Geoffrey B Small. (n.d.). *Santa Fe Dry Goods*. Retrieved from <https://santafedrygoods.com/designers/geoffrey-b-small/>
- GEOFFREY B. SMALL “LOGOMANIA revisited.” (n.d.). *Geoffrey B. Small*. Retrieved from <http://www.geoffreybsmall.net/logo-mania.html>
- Geoffrey B.Small 2019-20autumn & winter “the onion” 11.23 (Sat.) store release. (2019, November 20). *HU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hues.co.jp/geoffrey-b-small-2019-20autumnwinter-the-onion-11-23sat-store-release/>
- Geoffreybsmall. (2020, April 16).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_CaB6KgKzX/?igshid=yy6z9sntrafj
- Gonsalves, R. (2017, March 28). Well versed: John Alexander Skelton's Shelley-inspired collection is poetry in motion. *Wallpaper*. Retrieved from <https://www.wallpaper.com/fashion/john-alexander-skelton-shelley-inspired-collection-is-poetry-in-motion>
- Hall, J. (2018). Digital Kimono: Fast fashion, slow fashion? *Fashion Theory*, 22(3), 283–307. doi:10.1080/1362704X.2017.1319175
- Jang, H.-j. (2007). Citta slow, the way to alternative tourism. *CE-RI Entertainment Review*, 8, 89–110.
- Johansson, E. (2010). *Slow fashion - the answer for a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Borås, Borås.
- John Alexander Skelton. (2016, December 27). *Whitelies*. Retrieved from <https://www.whiteliesmagazine.com/blog/2016/12/27/john-alexander-skelton-ii>
- John Alexander Skelton. (n.d.-a). *Sarabande*. Retrieved from <https://sarabandefoundation.org/blogs/artist/john-alexander-skelton>
- John Alexander Skelton. (n.d.-b). *H.Lorenzo*. Retrieved from <https://www.hlorenzo.com/collections/john-alexander-skelton>
- John Alexander Skelton. (n.d.-c). *Ink*. Retrieved from <https://www.ink-clothing.com/en/Man/brands/172/John-Alexander-Skelton/SPRING-SUMMER-2020/id=599>
- Jung, S., & Jin, B. (2014).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slow fashion: sustainable future of the apparel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8(5), 510–519. doi:10.1111/ijcs.12127
- Jung, S., & Jin, B.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of slow fashion businesses: Customer value approach. *Sustainability*, 8(6):540. doi:10.3390/su8060540
- Kang, C. (2017, September 2). 느림 운동 - 속도가 전부는 아니다 [Slow movement - Speed is not all]. *JoongAng Ilbo*.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1899018>
- Kang, H.-M.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trends in contemporary knitfashion desig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8(1), 70–75. doi:10.35226/kskd.2020.18.1.70
- Kendall, H. (2018, March 23). John Skelton: Fashion's environmental maverick. *Another Man*. Retrieved from <https://www.anothermanmag.com/style-grooming/10245/john-skelton-fashions-environmental-maverick>
- Kim, J. D. (2015). Slow food actions against biodiversity crisi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37, 49–72.
- Kim, Y.-H. (2002). The ‘Be Slow’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current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165–179.
- Labercane, C. (2019, August 9). The super slow fashion of Geoffrey B. Small. *MONTECRISTO Magazine*. Retrieved from

- https://montecristomagazine.com/style/geoffrey-b-small
- Lee, D. A., & Ahn, I.-S. (2015). A study on slow fashion related to convergenc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2), 33-47. doi:10.7233/jksc.2015.65.2.033
- Lee, H. I. (2020, February 14). 지속가능 패션의 미래를 보여준 '2020 베를린 네오니트(Neonyt) 박람회' ['2020 Berlin Neonyt Fair', which showed the future of sustainable fashion]. *Apparelnews*. Retrieved from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0907
- Lee, J. S., Kwon, H. S., & Koh, A.-R. (2014). The consumption desire for slow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1), 59-72. doi:10.5850/JKSCT.2014.38.1.59
- Lee, K. J., & Kim, I. (2018). A study on sustainable fashion runway of ethical fashion brands - With a focus on 'sustainable fashion and design' runway of 2017 S/S Seoul Fashion Week -.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6(2), 5-20. doi:10.18852/bdak.2018.16.2.5
- Lee, M.-S., & Yhang, W.-J.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low tourism in Bus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0, 283-297. doi:10.17949/jneac.1.20.200909.015
- Lee, Y. H., Lee, H. A., & Park, J. O. (2007). Sustainable slow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 21-32. doi:10.5850/JKSCT.2007.31.1.021
- Lee, Y.-H., Lee, Y.-M., & Ha, S.-Y. (2004). Sustainable slow design based on Victor Papanek's ecological aesth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1(3), 185-197.
- Lee, Y. P. (2002). A study on the change of life environment and design according to slow liv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8(2), 15-26.
- Moss, J. (2018, April 27). Fashion designer John Skelton is weaving tales with fabric. *Another*. Retrieved from <https://www.anothermag.com/fashion-beauty/10797/fashion-designer-john-skelton-is-weaving-tales-with-fabric>
- Musmeci, C. (2015a, February 20). Geoffrey B. Small - "Witness" Autumn / Winter 2015 - 2016. *Le Paradox*. Retrieved from <http://www.leparadox.com/fashion/geoffrey-b-small-autumn-winter-2015-2016/>
- Musmeci, C. (2015b, April 15). Geoffrey B. Small - "Forests and Trees" Autumn-Winter 2015 / 2016. *Le Paradox*. Retrieved from <http://www.leparadox.com/fashion/geoffrey-b-small-fall-winter-2015-2016/>
- Oh, D.-H., & Hong, J.-U. (2009). A study on slow city's development direction suitable to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2(3), 267-294.
- Oh, K. C. (2020, January 3). '지속가능성'은 패션 산업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How 'sustainability' works in the fashion industry]. *Apparelnews*. Retrieved from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0236&cat=CAT11Z
- Park, H., Jang, H., & Son, D. (2008). A study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for Slow Tourism - The case of Slow City Jeungdo travellers -. *Journal of Tourism Studies*, 20(2), 43-63.
- Poh, T. (2020, March 30). Brand to know: A menswear label creating deliberately slow-crafted clothing. *T: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 Singapore*. Retrieved from <https://www.tsingapore.com/article/john-alexander-skelton-fashion-designer-interview>
- Pookulangara, S., & Shephard, A. (2013). Slow fashion movement: Understanding consumer perceptions—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20(2), 200-206. doi:10.1016/j.jretconser.2012.12.002
- Ro, J., & Kim, M. (2011). Th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s of slow fashion from a social view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11), 1386-1398. doi:10.5850/JKSCT.2011.35.11.1386
- Sanchez, E. C. C. (2019, June 28). Weaving history into clothing with John Alexander Skelton. *Darklands*. Retrieved from <https://www.darklandsberlin.com/blog/2019/06/in-conversation-john-alexander-skelton/>
- Shahnavaz, N. (2016, April 7). John Skelton is doing eco-friendly fashion his own way. *Dazed*. Retrieved from <https://www.dazeddigital.com/fashion/article/30660/1/john-skelton-is-doing-eco-friendly-fashion-his-own-way>
- Shin, M.-S., & Seo, J.-T. (2007). The vision and prospect of the slow tourism.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1(3), 23-38.
- Siwak, H. (2018, May 1). EcoLux☆Lifestyle: Avant-garde designer Geoffrey B. Small '100' book launch at Leisure Center. *EcoLuxLiv Communications*. Retrieved from <http://ecoluxliv.com/2018/05/avant-garde-designer-geoffrey-b-small-100-book-launch-at-leisure-center/>
- Siwak, H. (2019, December 26). Folio.YVR Issue #6: Geoffrey B Small launches 2020 collection at Leisure Center. *Medium*. Retrieved from <https://medium.com/folio-yvr-luxury-life-style-magazine/folio-yvr-issue-6-geoffrey-b-small-launches-2020-collection-at-leisure-center-c9a2209c601>
- Skeltonjohn. (2019a, June 21).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y-KCFBAVyL/?igshid=p9db1e25pa6n>
- Skeltonjohn. (2019b, June 23).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zBFAnlgenL/?igshid=111f4ew7g12gz>
- Skeltonjohn. (2019c, September 26).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23vjwjpgxSb/?igshid=9qgj886h1bzi>
- Skeltonjohn. (2020a, January 7).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23vjwjpgxSb/?igshid=9qgj886h1bzi>

- www.instagram.com/p/B6_RcxNgqyt/?igshid=1xqog6w161lek
- Skeltonjohn. (2020b, March 30).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B-WqlThgT3_/?igshid=1knahtfat147pg
- Skeltonjohn. (2020c, May 22). *Instagram*. Retrieved from <https://www.instagram.com/p/CAfofB8g9B-/?igshid=1fo4uuktswkh>
- Sohn, J. E. (2018).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나타난 ‘우밀레니에’의 문제: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The theme of ‘umilenie’ in 『The Brothers Karamazov』: Focusing on female characters].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62, 31-52.
- Štefko, R., & Steffek, V. (2018). Key issues in slow fashion: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erspectives. *Sustainability*, 10(7): 2270. doi:10.3390/su10072270
- Sull, D., & Turconi, S. (2008). Fast fashion lessons. *Business Strategy Review*, 19(2), 4-11. doi:10.1111/j.1467-8616.2008.00527.x
- The amazing Geoffrey B. Small story: 1976-2011. (n.d.). *Geoffrey B. Small*. Retrieved from <http://www.geoffreybsmall.net/gbsstory.htm>
- Thompson, I. (2018, March 7). Fashion in motion at the V&A London. *Blue Studio Trading*. Retrieved from <https://www.bluestudiotrading.com/post/fashion-in-motion-vanda-london>
- Toner, P. (2020, January 6). John Alexander Skelton: Menswear AW20. *10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10magazine.com/menswear/john-alexander-skelton-menswear-aw20/>
- Watson, M. Z., & Yan, R.-N. (201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decision processes of fast versus slow fashion consumer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7(2), 141-159. doi:10.1108/JFMM-02-2011-0045
- Wholesales agent contract with Geoffrey B.Small: Worldwide (n.d.). *Le Berger*. Retrieved from <http://leberger.jp/brand/geoffrey-b-small/>
- Zhang, T. (2020, January 6). John Alexander Skelton men's fall 2020. *WWD*. Retrieved from <https://wwd.com/runway/mens-fall-collections-2020/london/john-alexander-skelton/review/10x10-John-Alexander-Skelton>
- (2019, September 12). *British Council*. Retrieved from <https://design.britishcouncil.org/bl og/2019/sep/12/10x10-john-alexander-skelton/>
- 2019AW women's collection “I am not sustainable”. (n.d.). *Le Berger*. Retrieved from <http://leberger.jp/brand/geoffrey-b-small>

홍 준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

전 재 훈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